

FROM TWOWAY CANADA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말에 밴쿠버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다 못해 여메랄드 빛을 발산하는 새하얀 눈이 마음을 맑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넬슨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학교에서 진학상담을 통하여 졸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내면서 스카깅, 아이스하키, 동굴은천 등도 다녀오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월 중순에는 봄 방학이 시작됩니다. 6월까지의 강행군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는 이번 봄방학을 이용해서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방문 투어를 계획하여 원하는 학생들을 동반하여

대학진학 및 세계 최고 명문대학들의 대학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이제 이 발행물을 통하여 학생과 부모님들과의 보다 적절한 대화의 창으로 삼으려 합니다. 항상 저희가 부모님들께 지송한 것은 다른 유학원들처럼 적시에 적절하게 정보를 드리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방학 단기학생들을 데리고 온 유학원들에서는 동반한 선생님들이 매주 학교 생활, 대학 입학 준비 등을 보고 듣게 됩니다. 더불어 엠포이어 스테이트 빌딩, 소호, 자유의 여신상, 링컨 기념관 등 알찬 미국 동부여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꾸준히 늘어나는 학생들로 몇몇 학교는 제한적으로, 한정된 학생만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선정이라든가 홈스테이 배정에 보다 많은 양해를 부탁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메일로 불규칙하게 보내드린 소식을 이번을 계기로 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 드리려 합니다. 부족하고, 아쉽겠지만 그나마 위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상황이 더욱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유학생 숫자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 기사가 그걸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무책임하게 관리 형을 시행하면서 비싼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은 유학원들의 운영이 불러온 바가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꾸준히 늘어나는 학생들로 몇몇 학교는 제한적으로, 한정된 학생만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선정이라든가 홈스테이 배정에 보다 많은 양해를 부탁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메일로 불규칙하게 보내드린 소식을 이번을 계기로 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 드리려 합니다. 부족하고, 아쉽겠지만 그나마 위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공부하는 투웨이 캐나다 학생들에 관한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보다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투웨이캐나다 채병갑원장

목 차

- From 투웨이 캐나다 1
- 투웨이 캐나다 공지사항 1
- 투웨이 공항스케치 2
- 이달의 최우수 유학생 2
- 투웨이 학생들 이모저모 3
- 투웨이 유학설명회 안내 3
- 투웨이 생일 축하 4
- 투웨이 캐나다 동정 4
- 회사소개 4

FROM TWOWAY CANADA 공지사항

1. 2월 26일 겨울방학 단기스쿨링 참가했던 학생들이 무사 귀국하였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알찬 학교생활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2. 2월부터 2010 / 2011학년 2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6월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유학의 보람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3. 3월 13일부터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밀렸던 공부, 읽고 싶었던 책 읽기,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4. 3월 13일-20일 봄방학 기간 동안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투어가 시행됩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존홉킨스, 예일, 브라운, MIT,

컬럼비아 대학 등 동부 명문 대학을 방문하여 현지 선배들로부터 학교 생활, 대학 입학 준비 등을 보고 듣게 됩니다. 더불어 엠포이어 스테이트 빌딩, 소호, 자유의 여신상, 링컨 기념관 등 알찬 미국 동부여행이 될 것입니다

5. 4월 12일(화) - 18일(월)까지 넬슨 교육청의 샌디 선생님과 코목스 교육청의 연희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 대구, 부산, 창원, 울산에서 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FROM TWOWAY CANADA 공항스케치

채병갑 원장님과 함께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캐나다로 출발하였습니다.

초상권을 외치며 사진 찍기를 수줍어 하는 몇몇 남학생들을 빼고는 공항에 배웅 나온 가족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떠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합니다.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수의 막내 재원이 / 얼마 아배랑 함께



THE BEST STUDENT 손배환 (Mt. Sentinel Secondary School G11)

이번 달의 우수 학생으로는 Mt. Sentinel Secondary School 11학년에 재학중인 손배환 학생을 선정하였습니다.

배환이는 1년 전에 유학을 온 학생으로 넬슨(Nelson)지역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 학교에는 지난 학기 까지 배환이와 다른 여학생 한 명이 다녔습니다. 이번 겨울에 2명이 2개월 동안 추가 되기는 하였지만 한국학생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랍니다.

배환이에게 2번째 학기가 되는 지난 연말에 배환이는 이 학교 축구부 캡틴(주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학교 학생들이 부러

워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축구실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후배, 동료학생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팀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팀은 캐나다 학생들의 총애와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과목이 Plan-ning 이란 과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는 과목이죠. 이 과목을 수강하는 중에 모든 학생들은 1주일 기량의 현장 실습을 해야 합니다.

배환이가 선정한 곳은 넬슨 지역에서 가장 큰 호텔인 홈 호텔(Hotel Hume)

이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는 일주일 동안 배환이는 최고의 근무성적을 받았고, 호텔 측으로부터 본인이 원한다면 졸업 후 채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축하 받아 마땅한 일이고, 한국과 우리 유학생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환이의 선행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이따 알려져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 배환이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환아, 축하한다!!!”



축구 시험 전 심판 앞에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며 상대팀 주장과 인사하는 손배환 학생 (Mt. Sentinel Secondary G11)

NELSON 지역 학생들 이모저모

학교대항 농구대회

쿠트니 레이크 교육청에 속한 Secondary School 농구팀들이 학교대항 농구대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에 캐나다로 입국하여 Salmo Secondary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영래 학생과 이종훈학생이 농구팀에 합류하여 경기를 하였습니다.

Salmo지역에는 이 두 학생이 유일한 국제 학생으로 캐나다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현지에 잘 적응하며 지내는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Bowling Night Event

넬슨지역의 국제학생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볼링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Korean Cooking Class

교육청에서 한국 학생들이 살고있는 홈스테이 가족들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한국음식을 만들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한국인 관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홈스테이 부모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김밥, 만두,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이종훈, 오른쪽 조영래 학생 경기를 마치고 Slmo Secondary School 농구팀과 함께

CRESTON 지역 학생들 이모저모

크레스톤 학생들의 외출

크레스톤 (Creston)지역에 있는 우리 국제학생들이 1월 15일 넬슨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교육청 행사로 진행된 이번 액티비티는 넬슨 타운타운에서 쇼핑도 하고, 아이스워스 (Ainsworth)온천장에서 즐거운 오후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는 무료 페리(Ferry)를 타고 쿠트니 레이크(Kootenay Lake)를 넘어 돌아왔습니다.

크레스톤 구정 맞이 축제 (Lunar Festival at Creston)

2월 초는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구정기간 동안 크레스톤 지역에서는 구정 축제가 열렸습니다. 일부 중국계 분들이 잔치를 마련하고,우리 학생

들도 초대받아 음식과 놀이하였습니다.

Ski Day

크레스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스키장을 다녀왔습니다.

학교 액티비티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교 선생님들과 캐나다 친구들 모두 참석하는 행사여서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총 8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무료 페리(Ferry)를 타고 쿠트니 레이크(Kootenay Lake)를 넘어 왔습니다.”



한국인 없는 지역 투웨이 캐나다 조기유학

No Korean, Real Canadian

Twoway Canada 유학원은 캐나다를 중심으로 수년간의 조기유학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소의 유학 기간과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유학 프로그램 EIS(English Immersion Study)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Play, Learn, and Grow Together!"

HAPPY BRITHDAY 생일축하

투웨이 캐나다 유학원 학생들 이번엔 생일을 맞은 학생들입니다. 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1 January

백준(Jan,31) 효진(Jan,15) 정한(Jan,21) 성우(Jan,03) 종현(Jan,21) 재연(Jan,1)



2 February

경식(Feb,8) 민희(Feb,23)

3 March

정규(Mar,6) 지선(Mar,15) 지혜(Mar,1) 태균(Mar,24) 동우(Mar,28) 중훈(Mar,28) 재희(Mar,16) 산하(Mar,31) 현지(Mar,18)

4 April

리지(Apr,9)

TWOWAY CANADA 유학 설명회안내

투웨이 캐나다 유학원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논현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조기유학, 동반유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 소 : 투웨이 캐나다 유학원 논현동 본사 세미나실
-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 문 의 : 02-3444-9090 , 070-8692-9090
 bgchae@naver.com, www.uhakca.co.kr

캐나다 공립학교 유학 설명회안내

- 참가 교육청 : SD8 쿠트니 레이크 교육청, SD71 코목스 교육청
- 설명회 일정 : 서울 4/12, 금. SETEC (저하철3호선 학여울역)
 대구 4/15, 화. 대구그랜드호텔
 부산 4/16, 토. 해운대 센텀호텔
 창원 4/17, 일. 창원컨벤션센터(CECO)
 울산 4/18, 월. 울산가족문화센터
- 참가 문의 및 신청 : 02-3444-9090, 070-8692-9090

TWOWAY CANADA 동정

1 January

- 1/11 겨울방학 단기 스쿨링 프로그램 1월 출국
- 1/30 조기유학 관리형 프로그램 학생들 귀국
- 1/31 2월 학기 동반유학 가족 출국

2 February

- 2/10 겨울방학 단기 스쿨링 학생 1차 귀국
- 2/26 겨울방학 단기 스쿨링 학생 2차 귀국

3 March

- 3/13 - 3/20 미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투어
- 3/26 겨울방학 단기 스쿨링 학생 원장님과 함께 3차 귀국

4 April

4/12 - 4/18 캐나다 교육청 초청 유학설명회 (서울, 대구, 부산, 창원, 울산)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www.uhakca.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No Korean, Real Canadian

투웨이는 한국인 없는 '영어 청정지역'을 추구합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캐나다 조기유학

단기스쿨링, 관리형조기유학, 부모동반유학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벤틀라이프빌딩 410호 TEL : 02-3444-9090, 070-8692-9090

